



광주인권헌장 실천과 광주공동체 인권 개선을 위한
2022년도 인권지표 분석 · 평가결과



광주광역시

광주인권헌장 실천과 광주공동체 인권 개선을 위한 2022년도 인권지표 분석·평가결과

광주인권헌장의 실천도구인 인권지표의 2022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인권증진 개선도 등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인권정책 수립에 활용코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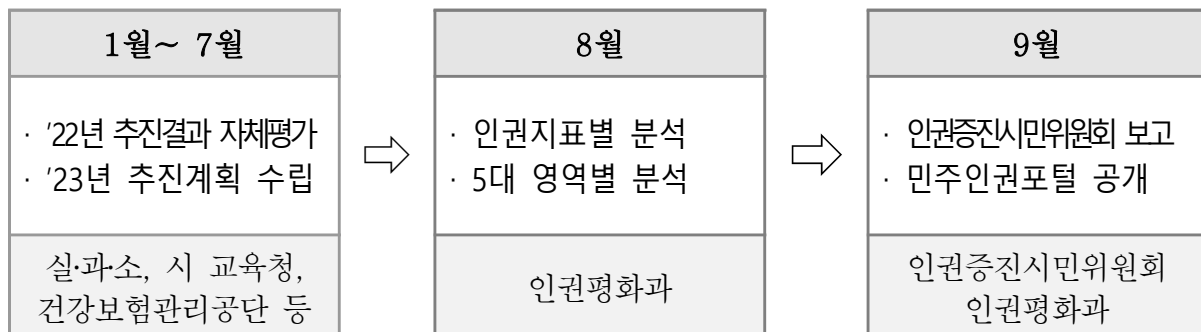
I 평가개요

-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 추진기간 : 2023. 1. ~ 8. ※ 대상기간 : '22. 1.~12.
- 평가대상 : 5대 영역 18개 분야 실천과제
- 평가방법 : 정량평가 (지표 51개 세부하위지표 73개)

인권지표 5대 영역	지표	하위지표
합 계	51	73
①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6	9
②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12	15
③ 사회적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16	23
④ 쾌적한 환경, 안전한 도시	9	12
⑤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8	14

II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평가방법

- 인권지표 5대 영역 18개 분야 실천과제에 대한 개선도 평가
- 인권지표 개선율은 하위지표별 측정산식에 따라 전년도 대비 개선율을 산출 후, 각 지표의 하위지표 개선율을 평균한 값
- 각 지표별 목표 값을 달성한 경우에는 전년 대비 감소여부에 관계없이 상승(개선) 지표로 평가
- 각 인권지표 개선율 결과에 대해 원인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 보고

인권지표 개요 및 추진경과

○ 인권지표 : 광주인권현장의 구체적 실천 도구

- 개발기관 : 광주시, 광주발전연구원 공동
- 구성체계 : 5대 영역 18개 분야

○ 추진경과

- 광주인권지표 개발 계획 수립 : '10.11.15
- 예비 인권지표 공동 개발(市, 광발연) 및 통합조정 : '11. 1.~ 3.
- 시민공청회 및 시민보고회를 통한 시민 의견수렴 : '11. 1.~'12. 2.
-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 '11. 1.~'12. 2.
- **광주 100대 인권지표 발표** : '12. 5.21.
- **전국 최초로 인권지표 세부실천계획 작성 및 시행** : '12. 9.~'13. 1.
- 인권지표 개선·보완(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전문가 TF) : '14. 9.~'15. 3.
 - 100대 인권지표 내 하위지표 추가·삭제 및 측정산식 개선 등
- **인권지표 개선·보완**(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전문가 TF) : '17. 2. / '19. 3.
 - ('17.2.) 100대 인권지표 147개 하위지표 → **50대 인권지표 72개 하위지표**
 - ('19.3.) 50대 인권지표 72개 하위지표 → **51대 인권지표 73개 하위지표**

※ 인권지표 정성평가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추진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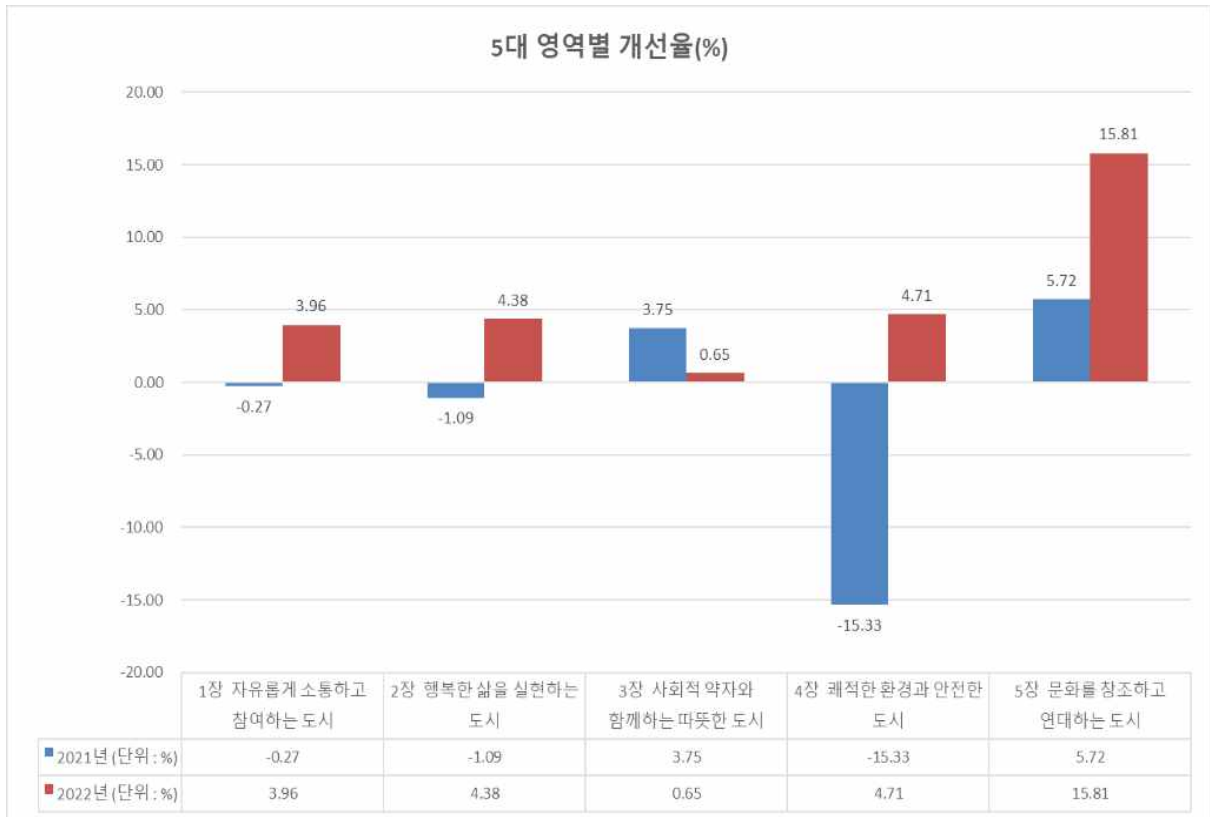
- 인권지표 정성평가 설문조사 : '14년 / '15년
- 인권지표 시민모니터링(사회적 약자 대상) : '16.12.
- 시민인권실태조사 : '20. 3.~10.

- 광주인권헌장(제5장 제18조)의 실천 도구인 인권지표(51대 인권지표 73개 하위지표)에 대한 2022년도 추진실적을 확인·점검하여 전년 대비 각 지표의 개선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 전년 대비 인권지표 개선율이 상승(5.77%)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활동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소되었던 시민 지원사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됨.

□ 5대 영역 개선을

- 2022년 인권지표 5대 영역 지표는 모두 상승하였음.
- 특히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영역의 개선율(15.81%)이 많이 상승하였으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개선율은 양호하였으나
-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영역의 개선율이 0.65%로 가장 낮아 향후 개선 노력 필요

구 분	개선율(%)	
	2022년	2021년
계	5.77	-1.44
①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3.96	-0.27
②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4.38	-1.09
③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0.65	3.75
④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4.71	-15.33
⑤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15.81	5.72



□ 73개 하위지표 개선율

- 하위지표 73개 과제에 대한 개선율은 53개 지표(77.55%) 상승, 20개(27.45%) 지표 하락
-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이주민 등) 지원 영역, 근로자 산업안전, 학교폭력 영역 일부에서 하락 지표수가 높게 나타났음.
- 약자와 동행하는 포용적인 도시,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권도시 광주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구 분	2022년		2021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계	53	20	51	22
①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4	5	7	2
②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10	5	10	5
③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15	8	17	6
④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11	1	8	4
⑤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13	1	9	5

□ 영역별 주요 증감내용

①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상 승	하 락
○ 자원봉사 참여율(2.06% → 3.84%) · '22년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55,020명으로 전년 29,818명 대비 25,202명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일부 회복 추세로 판단. 하지만 코로나 이전 10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참여자 실적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 ○ 시민사회단체 조직율(4.93% → 5.19%) · '22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16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 등록을 통한 공익활동 증진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	○ 인권교육 참여율(15.08% → 12.85%) · 우리시 인구 대비 12.85%인 183,887명이 인권교육에 참여. 교육대상 학생수 감소로 인권교육 참여 학생수가 '21년도 194천명에서 '22년도 167천명으로 감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참여율(2.05% → 1.75%) · '22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에 24,978명이 참여하여 참여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모금액은 11,499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4.7% 증가

②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상 승	하 락
○ 학생 천명당 상담건수(2.72백건 → 4.92백건) · 총 상담건수는 85,672건으로 전년 대비 3만여건 증가. 학교폭력예방 전문상담인력 지속 확보(247개교), 학교폭력 파·가해 학생·학부모 상담 및 치유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Wee센터 3개소 등 총 31개소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함 ○ 공공부분(출자·출연·지방공기업)비정규직 비율(14.30% → 10.35%) · 공공기관 비정규직수가 '21년(407명) 대비 113명 감소한 294명으로 비정규직비율이 3.95% 감소하였음.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 및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8회) 추진 등	○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14명 → 18명) · 전년 대비 업무상 사고 사망자 4명 증가,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산재예방 업무 추진하여 안전문화 확산 필요 ○ 학생 천명당 피해건수(학교폭력)(4.30% → 5.44%) · 학생폭력 피해자는 947명으로 학생 천명당 피해자는 전년 대비 1.1명이 증가한 5.4명임. · 학생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어울림·어깨동무학교 등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강화, 찾아가는 컨설팅단 구성·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나 지표하락

③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도시

상 승	하 락
○ 장애여성 출산율(0.41% → 0.69%) • '22년도 출생아 7,521명 대비 장애여성 출생아 수는 52명으로 0.28%로 증가,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육아 종합지원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 출산비용 지원으로 장애여성의 출산 친화문화 조성 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 ○ 전체 선출직수 대비 여성 당선자수(30.80% → 38.68%) • 선출직 정치인 106명 중 여성 정치인은 41명으로 38.68%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7.88% 상승, 2022년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임. 점차 여성정치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맞물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장애여성 출산후 돌봄지원 비율(15.15% → 8.00%) • 출산 장애여성 50명 대비 출산 후 돌봄지원서비스 수혜자는 총 4명으로 8%임, 장애인 여성 18명에 대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였고 이 중 4명에게 출산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전체 공공기관 수 대비 통역 서비스 지원 기관수(90.00% → 52.94%) • 공공기관 102개소 중 통역서비스 지원기관은 54개소로 전년(90개소) 대비 36개소 감소, 19,570건의 통역서비스를 지원하여 전년대비 서비스 건수는 910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기간 중 공공기관 대상 통역서비스 제공이 급증, 이후('22년) 코로나 19 감소로 지원기관 수치 하락

④ 쾌적한 환경, 안전한 도시

상 승	하 락
○ 1·2등급 장애인수 대비 전용차량 임차택시수(165.00% → 229.84%) • 도입목표 대수 216대를 초과한 297대 운영 중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 ※ 운행차량 297대(전용차량 116, 임차택시 81, 바우처택시 100대) ○ 탄소은행 가입자 지원액(903백만원 → 1,034백만원) • '22년도 탄소 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85,473가구/1,035백만원) 아파트 참여율 증가와 에너지 절감 효과로 아파트 6개 단지 인센티브 지급 확대	○ 저상버스 도입율(39.50 → 32.53%) • 전체 시내버스 면허대수 999대 대비 저상버스 운행대수 325대로 32.53%를 차지, '21년도 추진실적 도입대수 착오로 실제 저상버스 운행대수로 수치 적용.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

⑤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상 승	하 락
○ 국가폭력 생존자 등록관리율(12.70% → 24.09%)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생존자 4,318명(추정) 대비 국가폭력 생존자의 트라우마센터 등록인원은 1,040명으로 등록관리율은 24.09%임, 호남권 사업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등록 회원이 증가됨 ○ 국가폭력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참여자수 (1,915백명 → 3,260명)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3,260명으로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추진 프로그램 수 회복, 전문적인 치유 서비스 제공 등으로 참여자 수 대폭 증가. 전문적인 치유 서비스 제공으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정신·신체적 후유증 완화 및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	○ 중·고학생수 대비 학업중단자 수(0.76% → 0.88%) 중·고등학생 87,636명 중 학업 중단자는 775명으로 중단율은 0.88%를 차지, 검정고시 준비 또는 대안교육기관 선택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학업중단율도 높아지는 상황임

1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지표 6 / 하위지표 9)

☐ 사상 및 의사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① 시민 사생활 보호지수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기준 준수 평점 : 86.60점 / 개선율 -11.64%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가 기준(3개분야13개지표21개항목 ⇒ 5개분야 18개항목61개지표) 및 방식(정량100%⇒정량80%정성20%)이 변경. 개인정보 취급자 및 유지보수업체 대상 교육 및 캠페인 실시, 개인정보 매뉴얼 정비 등 시민 사생활 보호에 노력. 향후 평가 기준 및 방식을 반영하여 실적관리가 필요

☐ 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한 시민자치 실현

② 시민의 행정참여도

- 시 위원회 전체 위원 수 대비 시민위원 비율 : 79.74% / 개선률 2.23%

법정위원회 등 240개 위원회 총 위원 3,821명 중 위촉직(시민) 3,048명으로 79.74% 차지,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성별 편중 해소 및 청년위원 참여 확대 등으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추진

③ 행정정보 공개율

- 행정정보 공개율 : 96.54% / 개선율 △1.29%

※ 3개년(2019~2021년) 평균 정보 공개율 : 95.7%

정보공개 청구 2,691건 대비 2,598건 공개하여 전년 대비 1.29% 감소

정보공개법에 따른 적법한 정보공개로 투명한 시정 운영에 기여

☞ 비공개 대상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개인정보, 영업비밀, 안보·안전, 감사 등)

④ 시민사회단체 조직율

- 인구수 대비 시민사회단체 조직율 : 5.19% / 개선율 4.6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 742개, '22년 신규 등록은 16개 단체로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을 통한 공익활동 증진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

□ 인권문화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⑤ 기부 참여율

- 자원봉사 참여율 : 3.84% / 개선율 86.41%

'22년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55,020명으로 전년 29,818명 대비 25,202명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일부 회복 추세로 판단. 하지만 코로나 이전 10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참여자 실적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으로 활성화 노력 필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참여율 : 1.75% / 개선율 △14.63%

'22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에 24,978명이 참여하여 참여율은 감소하였으나 모금액은 11,499백만원으로 목표액(10,679백만원) 대비 4.7% 증가

⑥ 인권교육 참여율

- 전체 인구수 대비 인권교육 참여율 : 12.85% / 개선율 △14.79%

시 전체인구 대비 12.85%인 183,887명이 인권교육에 참여. 학생인구수 감소에 따라 '21년도 인권교육 대상 학생수가 197천명에서 '22년도에는 167천명으로 3천여명 감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인권단체 협력을 통한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향후 교육 참여자 흥미 및 집중도 제고를 위한 교육 주제 다양화 및 교육대상자 추가 발굴 필요

- 공무원 인권교육 이수율 : 97.40% / 개선율 △3.35%

전체 공무원 대비 97.4%인 4,081명 인권교육 수료, 공직자 인권교육(수요 인권 강좌) 10회 개최 등 인권행정 구현을 위한 인권의식 함양 교육. 기후위기, 신기술,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관련 교육 추진

- 초·중·고 인권교육 실시학교 비율 : 100.0% / 목표 달성

관내 초·중·고 319개교 학생 167,867명 전원 인권교육에 참여(100% 목표 달성)
교과과정 중 하나로 전체 학생대상 연 4시간 실시

□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실현

① 비정규직 비율

- 취업자 수 대비 비정규직 비율 : 37.71% / 개선율 5.73%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37.71%로 전년 40.00% 대비 2.29% 감소

※ 2022.8월 비정규직 비율 : (비정규직수 221천명/전체임금근로자수 586천명)*100

- 공공기관(출자출연,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비율 : 10.35% / 개선율 27.62%

공공기관 비정규직수가 '21년(407명) 대비 113명 감소하여 비정규직비율이 3.95% 감소하였음.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 및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8회) 추진 등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기여

- 정규직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율 : 54.02% / 개선율 1.92%

전년 대비 임금율 1.02% 상승, 생활임금 적용 확대 추진 등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유도

※ (2022.8월 기준) 비정규직 평균임금 188만원, 정규직 평균임금 348만원

② 체불임금 해소율

- 체불임금 발생건수 대비 처리율 : 98.77% / 개선율 △0.23%

체불임금 발생 3,977건 대비 3,928건에 대한 체불임금 해소 '21년 대비 0.23% 감소.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하여 임금체불 현황파악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 및 권리보장 강화

③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 수

- 사회적 경제기업 일자리수 : 4,350개 / 개선율 0.81%

예비 사회적 기업(27개), 인증 사회적 기업(16개), 마을기업(8개), 협동조합(37개) 신규 지정. 일자리 창출지원(128개소, 363명), 사회보험료 지원(35개소 307명), 인규베이팅 인건비 지원(5개소, 5명)등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정책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 제공

④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이주노동자 노동관련 상담건수 : 3,921건 / 개선율 5.37%

이주노동자 노동관련 상담건수는 전년 대비 200건이 증가한 3,791건, 고려인마을 통역상담 수가 2,600건으로 많은 비중 차지. 생활, 일자리, 비자, 법률상담 등 분류하여 각 단체별로 실시 및 관리하는데, 향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⑤ 근로자 산업안전

-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 : 18명 / 개선율 Δ 28.57%

전년 대비 업무상 사고 사망자 4명 증가,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산재예방 업무 추진으로 안전문화 확산 필요

※ 2019년부터 신규로 추가된 평가지표로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연도별 광주 지역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 자료 활용

□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보장

⑥ 자살률

-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 : 24.60명 / 개선율 6.82%

자살위기대응 및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자살예방사업 활성화로 통계청에 의한 우리 시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이 전년 26.4% 대비 1.8명 감소한 24.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13위로 여전히 하위권. 자살률이 전국 대비 낮은 수준(전국 26명, 우리시 24.6명)이나 지속적인 자살원인분석에 따른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사업 전략 강화 필요

⑦ 스트레스 인지율

- 스트레스 인지율 : 25.90% / 개선율 6.50%

다양한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취약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인식개선을 통해 시민 정신건강증진 도모. 코로나 우울대응 심리지원 및 마음건강회복 캠페인, 정신과전문의 심층 상담 활성화로 불안, 스트레스 등 완화를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⑧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율 : 42.90% / 개선율 Δ 1.15%

의료급여 수급권자(검진대상자) 26,790명 대비 수검자는 11,508명으로 42.90%, 전년도 보다 0.5% 낮은 실적임. '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어 수검자 수 일부 증가. 취약계층에 맞춤형 수검 홍보 및 관련기관 협조체계를 강화 등 수검률 증가 노력 필요

⑨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율

-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율 : 46.72% / 개선율 25.93%

만 60세 이상 인구 319,802명 대비 치매 조기검진 인구는 149,413명으로 수검율은 46.72%를 차지, 전년대비 9.62%증가.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환자를 조기에 발견 적절한 치료 및 관리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⑩ 공공임대 주택 비율

- 전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 주택 비율 : 11.21% / 개선율 1.91%

전체 주택수 643,585세대 대비 공공임대 주택수는 72,125세대로 11.21%를 차지, 매입임대, 전세임대 총 2,014호 확보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무주택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여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 기여

☐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

⑪ 장애인 학대 및 폭력발생률

-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건수 대비 구제율 : 88.56% / 개선율 Δ 3.74%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한 상담 1,599건 대비 1,416건(88.56%) 구제, '21년 대비 구제건수가 50건 증가하였으나, 상담건수 역시 115건 증가하여 비율이 소폭 감소. 학대신고 전화상담 시스템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 등 사후지원 통해 장애인 권익 보호에 기여

⑫ 학교 내 폭력발생 및 구제

- 학생 천명당 피해자 수 : 5.44명 / 개선율 $\triangle 26.51\%$

학생폭력 피해자는 947명으로 학생 천명당 피해자는 전년 대비 1.1명이 증가한 5.4명임. 학생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어울림·어깨동무학교 등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강화, 찾아가는 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추진 중

- 학생 천명당 상담건수 : 492건 / 개선율 80.88%

총 상담건수는 85,672건으로 전년 대비 3만여건 증가. 학교폭력예방 전문상담인력 지속 확보(247개교),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학부모 상담 및 치유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운영(Wee센터 3개소 등 총 31개소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필요

3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지표 16 / 하위지표 23)

☐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보장

① 빈곤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 6.47% / 개선율 $\triangle 2.37\%$

우리시 인구수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4,137명으로 전년 대비 0.15%가 증가. 빈곤율 증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선정 기준 완화에 의한 수급보장 확대가 주원인으로 분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포용적 제도 운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기여

② 국민연금 납입자율

- 국민연금 대상자 대비 납입율 : 83.76% / 개선율 1.97%

노령, 사망,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 대상자 대비 납입자율(절대 징수율)은 전년 대비 1.62%가 증가한 83.76%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강화에 기여

□ 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보장

③ 여성대표성

- 선출직 여성 정치인 비율 : 38.68% / 개선율 25.58%

선출직 정치인 106명 중 여성 정치인은 41명으로 38.68%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7.88% 상승. 2022년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임. 점차 여성정치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맞물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 27.33% / 개선율 14.83%

우리 시 전체 5급 이상 공무원 505명 중 여성 공무원은 138명(27.3%)으로 전년 대비 3.53% 증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목표(24.1%) 초과 달성. 성별에 영향없이 성과에 따라 능력을 인정받는 공직문화 조성

- 초·중·고등학교 여성 교장 비율 : 61.76% / 개선율 △0.68%

초·중·고등학교 교장 238명 중 여성 교장은 147명으로 61.76%를 차지, 전년 대비 0.42% 감소하였으나 최근 4년간 여성교장 수 비율이 60%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④ 여성노동격차

- 15세 이상 여성 인구 대비 취업율 : 50.00% / 개선율 0.40%

'22년도 15세 이상 여성 고용율은 50.00%로 전년대비 0.2% 증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5개소) 운영지원 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 고용율 제고

- 여성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실업율 : 3.20% / 개선율 13.51%

'22년도 여성 실업률은 3.2%로 전년대비 0.5% 낮아짐. 코로나19로 높아진 실업률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추정. 직업능력개발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등 실업률 감소에 노력

⑤ 돌봄·양육

- 국·공립 직장 내 아동보육시설 설치율 : 100% / 목표 달성

'22년도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20개소에 대해 설치를 독려하여 20개 사업장 전체에 직장 내 아동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보육 실시 완료(100%).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설치의무 이행여부 조사 실시. 근로자에 안정된 보육환경 제공으로 일·가정 양립과 근무여건 향상에 기여

- 남성 공무원 육아 휴직율 : 38.28% / 개선율 Δ 20.25%

'22년 우리시 전체 육아휴직자 128명 중 남성이 49명을 차지하여 전년 대비 9.72% 감소. 코로나 19 상황 완화에 따른 육아부담 완화 및 금리인상 등 경제적 부담으로 남성 휴직자 감소 추정

□ 아동·청소년·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⑥ 보호대상아동 가정돌봄

- 보호대상 아동 중 가정돌봄율 : 55.56% / 개선율 Δ 1.70%

'22년 보호조치 아동은 총 72명으로 가정형 돌봄 아동은 총 40명으로 전년 대비 0.96% 감소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원가정 보호가 어려울시 가정위탁보호를 지향하고 있음. 가정위탁보호활성화를 위해 위탁부모교육, 양육보조금 등 지원

☞ 가정위탁(27명), 입양(2명), 공동생활가정(11명), 아동양육시설(32명)

⑦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 18세 이하 아동수 대비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 3.28% / 개선율 1.55%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율은 전년 대비 0.05%증가. 지역아동센터 305개소 중 303개소에 운영비 지원, 저녁돌봄 제공(18개소), 아동돌봄 환경개선 리모델링 지원(44개소) 하원 안심알리미 설치·운영(305개소)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강화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에 기여

⑧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율

- 전체 청소년 대비 위기청소년 지원율 : 34.99% / 개선율 12.15%

전체 청소년 260,830명 중 지원 청소년은 91,269명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

위기 및 긴급사례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1388청소년지원단을 활용한 통합적 개입 등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 도모

⑨ 결식아동 지원을

- 결식아동 지원율 : 100% / 목표 달성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결식우려 18세 미만 아동 17,710명 전원 급식 지원, 신한카드와 협약을 맺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1,900여개소⇒17,000여개소)등 적극적 행정 추진으로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영양 개선 제고

※ 단가 : ('21년) 6,000원/1식 → ('22년) 7,000원/1식

⑩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수혜율

- 노인시설, 재가급여 수혜율 : 17.48% / 개선율 △1.13%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27,696명 중 시설·재가급여 수혜자는 총 4,842명으로 17.48%를 차지, 수혜자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보험등급자수도 같이 증가하여 수혜율이 소폭 감소.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등급자를 발굴하는 지원노력 필요

□ 차별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

⑪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 : 3.96% / 개선율 13.79%

우리시 공무원 2,399명 중 장애인 공무원은 95명으로 3.96%를 차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의무고용율 3.6%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총원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신규 공채채용으로 노력중이나 응시자 성적부진으로 합격률이 낮음

⑫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시간

- 중증장애인 1인당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시간 : 24.90시간 / 개선율 10.67%

중증장애인 27,720명에 대한 월평균 활동보조지원시간은 전년 대비 2.4시간 증가한 24.9시간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

⑬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설치

- 3급 이하 장애인 수 대비 직업재활시설 정원을 : 3.11% / 개선율 2.98%

3급 이하 장애인 27,720명 대비 직업재활시설 정원은 863명으로 3.11%를 차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0개소 운영 지원, 기능보강 지원(19개사업) 등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원대비 대기자 수 : 0명 / 개선율 전년 동일

직업재활시설 정원은 863명으로 정원 대비 대기자는 없음

⑭ 장애여성 출산율

- 장애 여성 출산율 : 0.69% / 개선율 68.29%

'22년 출생아 7,521명 대비 장애여성 출생아수는 52명으로 0.28%로 증가.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육아 종합지원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 출산비용 지원으로 장애여성의 출산 친화문화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장애여성 출산 후 돌봄 지원율 : 8.00% / 개선율 △47.19%

출산 장애여성 50명 대비 출산 후 돌봄지원서비스 수혜자는 총 4명으로 8%임. 장애인 여성 18명에 대해 가사도우미를 지원, 이 중 4명에게 출산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

⑮ 장애인 대학 진학률

- 장애인 대학 진학률 : 0.35% / 개선율 0%

우리시 장애 대학생은 전년 219명에서 212명으로 7명이 감소, 전체 대학생 중 장애인의 대학 진학율은 전년 대비 동일.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장애인의 인권 증진 제고

- 여성 장애인 대학 진학률 : 41.51% / 개선율 △10.87%

전체 장애인 대학생 대비 여성 장애인은 전년 102명에서 88명으로 14명 감소, 전년대비 5.06% 감소. 여성장애인의 교육권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

□ 다양한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⑩ 이주민(외국인) 이동권과 언어소통권

- 통역서비스 지원 공공기관 수 : 52.94% / 개선율 △41.18%

공공기관 102개소 중 통역서비스 지원기관은 54개소로 전년 대비 36개소 감소, 19,570건의 통역서비스를 지원하여 전년대비 서비스 건수는 910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기간 중 공공기관 대상 통역서비스 제공이 급증, 이후 코로나 19 감소('22년도)로 지원기관 수치 하락. 지속적인 통역서비스 지원기관 및 대상 발굴 필요

4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지표 9 / 하위지표 12)

□ 쾌적한 환경과 여가시설을 공유할 권리보장

① 대기오염도 저감

- 통합 대기환경 지수 : 30.10% / 개선율 0.59%

'22년 통합 환경지수는 30.10%로 작년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 우리시 대기질은 환경기준 이내로 양호한 수준이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7\mu\text{g}/\text{m}^3$ (기준: $15\mu\text{g}/\text{m}^3$)로 13%를 초과하여 지속적 관리 필요

☞ 통합대기환경지수(CAI) : 아황산가스(SO₂), 오존(O₃), 이산화질소(NO₂), 일산화탄소(CO) 4개 항목 합계의 평균 값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는 인위적 요인보다 황사 등 자연현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항목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 1인당 공원조성 면적 : 6.32m^2 / 개선율 2.93%

공원조성 전체면적은 9,038천 m^2 로, 1인당 인구 대비 공원조성 면적은 6.32m^2 ,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0.18m^2 증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증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 47.69% / 개선율 1.45%

신규 공원조성 실적은 없으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과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 등으로 조성면적이 증가하여 도시공원 조성률이 0.68% 증가

③ 녹색 에너지 자립도

- 탄소은행 가입 수 : 363,082가구 / 개선율 0.72%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수는 363,082 세대로 작년대비 2,599세대 추가 가입을 하였으며 홍보활동 등으로 가입률 58% 달성, 생활속 탄소중립 확산 기여

- 탄소은행 가입자 지원액 : 1,034백만원 / 개선율 14.51%

'22년도 탄소 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85,473가구/1,035백만원) 아파트 참여율 증가와 에너지 절감 효과로 아파트 6개 단지 인센티브 지급 확대

④ 공공 체육시설 수 확대

- 국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적정면적 대비 확보율 : 37.54% / 개선율 10.28%

우리시 공공 체육시설은 1,130개소(3.051천㎡), 1인당 확보면적은 2.14㎡로 국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적정면적 5.7㎡ 대비 37.54% 달성, 공공체육시설의 단계적 확충으로 시민 건강증진 도모 및 주민 생활권내 여가체육활동 공간 마련

☞ 1인당 공공체육시설 적정면적(문체부) : 5.7㎡

☐ 시민 모두에게 장벽없는 편리한 도시조성

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률

- 저상버스 도입율 : 32.53% / 개선율 △17.65%

전체 시내버스 면허대수 999대 대비 저상버스 운행대수 325대로 32.53%를 차지, '21년도 추진실적 도입대수 착오로 실제 저상버스 운행대수로 수치 적용.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

- 1:2급 장애인 대비 전용차량임차택시 비율 : 229.84% / 개선율 39.30%

도입목표 대수 216대를 초과한 297대 운영 중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
※ 운행차량 297대(전용차량 116, 임차택시 81, 바우처택시 100대)

⑥ 시각장애인 보행시설 설치율

- 음향신호기 설치율 : 100% / 목표 달성

'22년 설치목표 80대 대비 80대(17개소)를 설치하여 설치율 100% 달성,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횡단보도 이용 시 안내 역할 등 편리성 제고를 통한 보행권 확보에 큰 역할을 하여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도시 조성에 기여

□ 범죄·교통사고·재해·화재·유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

⑦ 치안안전도

-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율 : 81.60% / 개선율 1.75%

'22년도 5대범죄 검거율은 81.6%(전년 대비 1.4% 증가), 5대(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죄 발생 비율이 0.6%p 늘었으나, 검거율이 1.4%p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치안 안전도 향상

⑧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율 : 100.0% / 목표 달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화재·자연재해에 취약한 15,918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설치 완료(100%).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취약계층 총 59,512가구에 소방시설 보급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로 안전도시 건설에 기여. 2021년 부터는 일반계층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 중이며, 자치구 협조를 통해 신규 취약계층에 대한 보급률 100% 유지 중

⑨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율

- 유통식품 부적합 발생율 : 0.60% / 개선율 9.09%

유통식품 검사 4,325건 대비 부적합 건수 26건으로 부적합 식품. 발생율은 0.60%를 차지, 다소비 유통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기준·규격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폐기로 부적합 제품 사전 차단하여 식품 안정성 확보

□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①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 20.82명 / 개선율 0.67%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증개축 및 실전환을 통해 학생배치시설 확충하여 2022년 학급당 학생수는 20.82명으로 전년 대비 0.14명 감소. 지속적인 교육 여건 개선으로 학급당 학생수 OECD 평균(20.4명)보다 약간 높으나 한국 평균(23.0명)보다는 낮음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중·고등학생 학업중단율 : 0.88% / 개선율 △15.79%

중·고등학생 87,636명 중 학업 중단자는 775명으로 중단율은 0.88%를 차지, 검정고시 준비 또는 대안교육기관 선택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학업중단율도 높아지는 상황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액 : 2,239백만원 / 개선율 12.34%

전년 대비 246백만원이 증가한 총 2,239백만원을 지원, 청소년세상 배움카드 지원, 청소년 작업장 8개소 개설 및 운영, 여성 학교밖 청소년 생리용품지원 등 지원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③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지원

- 무상급식비 1인당 지원액 : 5,370원 / 개선율 8.70%

유·초·중·고·특수학교 590개교 197,956명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1인당 무상급식 지원액은 5,370원으로 전년 대비 429원 상승

④ 청소년 시설 설치와 지원

- 청소년 시설 설치수 : 18개소 / 개선율 5.88%

'21년 대비 1개소 증가한 총 18개소 운영, 선제적인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청소년 시설 지원예산액 : 5,677백만원 / 개선율 20.71%

청소년 시설(18개소)에 지원한 예산은 5,67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74백만원 증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청소년 문화·예술 수련거리 등 체험기회 제공

☐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보장

⑤ 공공도서관 접근도와 이용률

- 인구 4.5만명당 도서관 수 : 26개소 / 개선율 8.33%

기존 24개 공공도서관에 22년도 2개 도서관(중흥, 신용)을 추가 개관하여 26개관 운영중. 목표대비 6개 추가개관 필요, 23년 공공도서관 3개소가 신규 개관 예정

- 인구 4.5만명당 공공도서관 이용율 : 309.92% / 개선율 16.51%

우리시 인구수 대비 도서관 이용자 수는 4,506천명으로 이용률 309%임. 1관당 인구수는 55,923명임. 코로나 19이후 낮아진 이용율이 점차 회복중임.

⑥ 소외계층 문화활동 수혜율

- 통합 문화이용권 수혜율 : 88.49% / 개선율 13.16%

문화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98,589명 대비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는 87,237명으로 수혜율이 88.49%임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

☐ 국내외 인권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⑦ 국내·외 인권교류 협력건수

- 인권관련 국제기구 회의 및 단체가입 건수 : 3건 / 개선율 0%

UNESCO아태차별반대도시연합 회의 개최, UNESCO APCAD포용도시 지표 관련

전문가 회의, UNESCO포용지속가능도시국제연합 글로벌운영위 개최로 인권관련 국제기구와 회의 3회 개최

- **인권도시 정책 협약 체결건수 : 0건 / 개선율 0%**

인권도시 정책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나, 22년도 정책협약 건수는 없음. 다양한 기구 및 단체와 인권정책교류 활성화로 정책개발 및 공동사업 추진 등 협력강화 필요

- **인권도시 정책 교류건수 : 65건 / 개선율 0%**

세계인권도시포럼 61건, 미얀마사태 대응 회의, 유네스코 지방정부 관련 글로벌 포럼 등 추진으로 지방정부 인권증진 강화 기여

⑧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

- **5·18 등 국가폭력 생존자 등록관리율 : 24.09% / 개선율 89.69%**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생존자 4,318명(추정) 대비 국가폭력 생존자의 트라우마센터 등록인원은 1,040명으로 등록관리율은 24.09%임, 호남권 사업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등록회원 증가

-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수 : 3,260명 / 개선율 70.23%**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3,260명으로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추진 프로그램 수 회복, 전문적인 치유 서비스 제공 등으로 참여자 수 대폭 증가. 전문적인 치유 서비스 제공으로 국가폭력 피해자의 정신·신체적 후유증 완화 및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